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9
----------	-----

발의연월일 : 2024. 6. 25.

발 의 자 : 정준호 · 강훈식 · 김현정
민병덕 · 민형배 · 박홍근
송옥주 · 이광희 · 이수진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31조의2에 따른 법원의 요구로 관련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제31조의2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u>경우</u> 또는 <u>증권선물위원회</u> 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u>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밀엄수) ----- ----- ----- ----- ----- ----- <u>경우, 증권선물위원회</u> ----- ----- ----- ----- ----- ----- <u>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31조의2에 따른 법원의 요구로 관련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